

DNA 분석 딱 걸린 한우 둔갑 미국산 소고기

여수 업체 2년간 거짓표시 판매
가짜 장흥한우 판매 9곳도 덮임
전남농원원 원산지 속인 10곳 입건

추석을 앞두고 미국산 소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정육판매점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전남지역 정육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전남 경찰청을 내세우는 ‘농도(農都)’ 전남에도 해마다 수십 건 넘게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되면서 지역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전남농원원)은 9일 “소고기 원산지를 속인 혐의(농수산물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10곳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여수에서 정육판매점을 운영하는 A(56)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년 동안 1071만원 상당의 미국산 소고기 855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2959만원을 받고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에는 1~8월 사이 미국산 갈비살 65kg을 202만원에 구입한 뒤 715만원에 팔아 513만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 이 점포는 식육표시판과 라벨지에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표기해 왔으며, 업주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고기를 소비자가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원산지를 속였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게 옆에 비밀 공간을 만들어 외국인 소고기를 따로 보관했다.

전남농원원은 원산지를 속여 소고기를 판다는 제보를 받고 소비자과 같은 경로로 2차례에 걸쳐 확보한 소고기의 DNA(유

전자)를 분석해 이를 적발했다.

온라인 상에서 다른 지역 소고기를 장흥산으로 속여 판 ‘장흥진장흥토요시장’ 입점 업체 9곳도 덮임을 잡았다.

이 업체들은 장흥토요시장에서 식육을 운영하는 업체로 각각 월 매출이 1억원이 넘는 곳으로 알려졌다.

TV홈쇼핑이나 통신판매업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할 때 다른 지역에서 사육된 소의 원산지를 ‘전남 장흥’으로 표시했다.

또 ‘구제역 없는 청정도시 장흥의 신선하고 풍미가 뛰어난’, ‘장흥한우의 자존심으로 1등급 이상 한우 암소만’, ‘어디에서 생산되나요? 남쪽지방 청정지역 장흥농가’ 등의 문구를 붙여 장흥산 소고기로 혼동하게 만들었다.

장흥한우는 브랜드가 없는 타 지역 한우보다 100g당 500~1000원 정도 높은 가격

에 판매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도 좋아 판매에 유리하다는 게 전남농원원의 설명이다.

한편 전남농원원이 최근 3년 동안 적발한 추석 대비 원산지 표시위반 건수는 ▲2017년 74건 ▲2018년 58건 ▲2019년 62건 등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올 추석을 앞두고는 지난달 19일부터 농산물 원산지 부정 표시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62건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41곳은 경찰에 형사 입건될 예정이며, 미표시 적발업체 21곳에는 과태료 총 369만원이 부과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농원원은 추석 연휴 전까지 농산물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신고자에게는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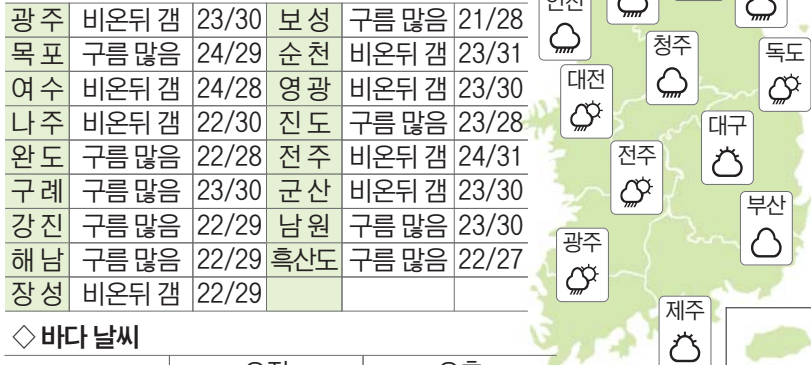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달뜨기	16:50
해진	18:48	달질	02:14

후텋지근한 오후

흐리고 새벽 한때 비온 뒤 그치는 곳 있겠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부 먼바다	남동~남	1.0~2.0	남동~남	1.0~2.0
남해 앞바다	남동~남	0.5~1.5	남동~남	0.5~1.0
남해 서부 먼바다(동)	남~남서	1.0~2.0	남동~남	1.0~2.0
남해 서부 먼바다(서)	남~남서	1.0~2.0	남동~남	1.0~1.5

◇물때				높음
	간조	만조	자외선	
목포	05:24	11:39		보통
	17:13	--:--		
여수	01:13	06:53		
	12:54	19:43	미세먼지	

추석 연휴 전국 응급실 521개 운영

추석 연휴에 전국 응급실 521곳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진료한다.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인 12~15일 하루 평균 6873개의 응급실과 보건소, 병원, 의원, 약국 등이 문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응급실은 연휴기간 내내 521곳이 운영되며,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에 진료료를 계속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

료원)은 24시간 가동된다.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남구, 추석 연휴 보건소 비상진료·쓰레기 수거

광주시 남구가 추석 연휴에 보건소 비상 진료와 쓰레기 수거 등을 운영한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인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비상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 의료기관과 당직 약국제도 운영된다. 광주기독병원과 씨티병원, 동아병원이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약국 38곳도 연휴에 문을 열 예정이다. 연휴기간에도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 현황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경미화원 특별 근무체계도 유지한다. 남구는 쓰레기 수거와 길거리 청소 등을 위해 230명을 투입할 예정으로, 추석 당일인 13일만 제외하고 정상 근무에 들어간다. 14일에는 음식물 쓰레기만 수거한다.

동구·서구·북구·광안구 등 나머지 4개 자치구도 추석 연휴 교통·청소·의료·재난 등 각 분야 대책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태동피해 농가 돕기 구슬땀 9월 제13호 태동 '링링'으로 낙파피해를 본 나주시 봉황면의 한 배농가에서 농협 전남본부 직원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전남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1년새 대폭 증가

광주 7배·전남 9배 늘어

광주와 전남지역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1년 새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차제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올해 7월까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건수가 688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자진반납 건수 96건보다 7.1배 증가했다.

전남도도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건수가 705건으로 지난해 79건에 비해 8.9배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2만 9697건으로 지난해 4886건보다 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 18.6배(591건→1만1046

건)로 가장 높았고, 인천(190건→1809건·9.5배), 충남(101건→943건·9.3배)에 이어 전남과 광주 순이었다.

한편 광주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추첨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고, 전남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상품권을 선택순으로 나눠주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름, 어디로 갈까?

사시사철 아름다운 순창 강천산으로 오세요!

사色 오感

순창이 참 좋다.

Season Your Life with Sunchang